

새벽예배 대표기도문 7월 넷째주

새벽예배 대표기도문 7월 넷째주

새벽예배 대표기도문 7월 넷째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구하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에게 영적 양식이 됩니다. 7월의 마지막 주를 맞이하여 지나온 한 달을 돌아보며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앞으로 다가올 8월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문들은 교회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새벽예배에서 사용하기 적합하도록 준비되었으며, 성경적 근거와 현실적 필요를 균형 있게 담았습니다.

새벽예배 대표기도문 7월 넷째주 1 - 감사와 회개의 기도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의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 시편 105:1

7월의 마지막 주를 맞이하며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부족했던 모습들을 돌아보는 회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7월 한 달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크고 작은 은혜들을 헤아려보니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건강을 주셨고, 일용할 양식을 주셨으며,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이토록 큰 은혜 앞에서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과 불평으로 하루를 보낸 날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 때문에 마음을 빼앗겨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잊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던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남은 7월의 마지막 날들과 다가올 8월을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진실한 회개를 받아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심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과 평안으로 나아가며,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예배 대표기도문 7월 넷째주 2 - 여름휴가와 안전을 위한 기도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들이 되시나니” - 시편 121:5

7월 넷째주를 맞아 여름휴가철을 보내는 성도들과 가족들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 간구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길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여름 성수기를 맞아 많은 성도들이 가족과 함께 휴식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상의 바쁨에서 벗어나 재충전하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할 수 있도록 이 시간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이후 오랜만에 자유롭게 여행을 떠날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휴가를 떠나는 모든 성도들의 여행길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모든 운전자들에게 안전운전의 마음을 주시고, 졸음이나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특히 고속도로와 국도의 교통정체 상황에서도 인내하며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바다나 계곡, 산을 찾는 성도들을 특별히 보호해 주시옵소서. 물놀이 사고나 등산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깊은 마음을 주시고,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신속한 구조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무더위와 폭우, 태풍 등 여름철 자연재해로부터 모든 여행객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휴가지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들이 서로에 대한 사랑을 더욱 깊게 하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휴식을 통해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더욱 활기차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여행을 떠날 수 없는 성도들에게도 일상 속에서 평안한 휴식을 주시고, 가까운 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안전하고 기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예배 대표기도문 7월 넷째주 3 - 교회와 목회자를 위한 기도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 마태복음 9:38

7월의 마지막 주를 맞아 하나님의 교회와 충성스럽게 섬기시는 목회자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주님의 몸 된 교회가 더욱 견고해지고 부흥하기를 간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름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새벽예배를 섬기며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을 특별히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름철 목회 사역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양떼들을 돌보시는 목자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하실 때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셔서 생명의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해주시옵소서. 여름 성수기로 인해 예배 참석률이 저조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으시고, 남아있는 성도들과 더욱 뜨거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휴가를 떠난 성도들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가족예배나 개인예배를 통해서도 주님과 교제를 이어가게 해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와 각종 수련회 프로그램들이 안전하고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재미있게 배우고, 신앙의 기초를 더욱 견고히 다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교사들과 봉사자들에게 지혜와 사랑의 마음을 더해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교회들과 목회자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복음 전파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더욱 빛나는 등대가 되어,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해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예배 대표기도문 7월 넷째주 4 - 가정과 자녀를 위한 기도

“또 네가 그것을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를 강론할 것이며” - 신명기 6:7

7월 넷째주를 맞아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신 소중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름방학을 보내는 자녀들과 함께하는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라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부모와 자녀로 연결해 주신 사랑의 끈에 감사드립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평소보다 많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들이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방학 중인 자녀들을 특별히 돌보아 주시옵소서. 규칙적인 학교 생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시간이 많아진 아이들이 건전하고 유익한 활동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게임이나 스마트폰에만 의존하지 않고, 독서와 운동, 창의적인 활동들을 통해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어가게 해주시옵소서. 부모들에게는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지혜와 인내를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아야 할 때 사랑으로 훈계할 수 있는 용기를, 때로는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해 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과 행동으로 신앙의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맞벌이로 인해 자녀들과 함께할 시간이 부족한 가정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조부모님들이나 친인척들이 아이들을 돌보는 경우에도 안전하고 사랑 가운데 보호받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학원이나 캠프 등에 참여하는 아이들도 좋은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만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청소년 자녀를 둔 가정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춘기의 어려움과 진로에 대한 고민으로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소통의 다리가 놓여지고, 서로를 존중하며 이해하는 관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녀 교육에 부담을 느끼는 가정들에게 필요한 도움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자녀들이 가정환경에 관계없이 꿈과 희망을 품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보며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기쁨과 웃음이 넘치고, 서로 격려하며 세워가는 행복한 보금자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예배 대표기도문 7월 넷째주 5 - 사회와 나라를 위한 기도

“내가 그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멀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그 가운데에서 찾았으나 찾지 못하였으므로” - 에스겔 22:30

7월의 마지막 주를 맞아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과 온 세계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며 경배드립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까지 발전해 올 수 있었음을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욱 번영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아시옵니다. 경제적 불안정과 청년 실업, 고령화 사회로 인한 문제들, 그리고 사회 전반에 만연한 갈등과 분열의 모습들을 보며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지혜가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에게 공의와 정직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개인의 이익이나 당파적 이해관계를 넘어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특히 여름철 자연재해 대비와 국민 안전을 위한 정책들이 지혜롭게 수립되고 효과적으로

실행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과 소상공인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이후 지속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실업으로 고통받는 가정들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주어지고, 모든 국민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범죄와 불의한 일들을 막아주시옵소서. 특히 아동과 여성, 노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들이 근절되고, 모든 국민이 안전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드러나고 바로잡아지며, 진실이 승리하는 사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분단의 아픔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민족에게 통일의 소망과 화해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전쟁의 위협 없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간구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분쟁들도 속히 종식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이 있기를 소망하며, 평화로운 해결책이 마련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잊지 않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예배 대표기도문 7월 넷째주 6 - 건강과 치유를 위한 기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 이사야 53:5

7월 넷째주를 맞아 무더위와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손길을 간구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돌보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철을 보내며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들, 특히 노약자와 만성질환자들을 특별히 돌보아 주시옵소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과 탈수 증상을 예방하시고, 모든 이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현재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환자들에게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손길이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암과 같은 중한 병으로 투병하고 계신 분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시고, 치료 과정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의료진들에게도 지혜와 실력을 더해주시어 최선의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각종 감염병의 확산을 막아주시옵소서.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다시 불안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개인 방역수칙을 잘 지켜 서로를 보호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의료진과 방역당국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그들이 지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정신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우울증과 불안장애, 공황장애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가정과 학교, 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아이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일에 힘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홀로 계신 어르신들과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특별히 돌보아 주시옵소서. 여름철 독거노인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시고, 이웃들과 지역사회가 관심을 갖고 돌봄의 손길을 내밀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요양원과 병원에 계신 분들에게도 가족들의 사랑과 관심이 끊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장애를 가지신 분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사회적 편견과 차별 없이 모든 이가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과 서비스들이 더욱 확충되고, 사회 전체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의료진들과 간병인, 사회복지사들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그들이 소명감을 갖고 헌신할 수 있도록 격려해

더 많은 기도문 보러가기:
[대표 기도문 나눔터] <https://prayer-church.co.kr/>